

빛과 어둠

(요일 1:5~2:2)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김동하 목사

세 가지 질문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5절).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6절~10절).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2:1~2).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게 되는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8).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게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이지만, 믿는 자의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사귄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아버지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3).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5절).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빛이라는 것으로 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빛들은 하나님에 의해 발현되었던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에(창 1:3, 욥 3:23, 시 50:2, 74:16), 빛이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실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까(예를 들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식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관의 흐름에도 자연스럽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어둠을 말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자라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는 선언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창조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신앙적인 입장에 놓여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6절~10절에서 우리가 어둠은 거짓 편에 있거나 밝은 진리 편에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편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어둠은 가운데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6절a). 이러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6절b). 또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8절a).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8절b).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범 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10절a).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10절b). 그렇다면, 진리 편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7절a).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요(7절b).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뜻합니다(9절).

어둠을 아니면 빛 가운데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드러난 것들은 죄였습니까. 어찌구무일까요.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서 죄라는 물음을 뒤집어쓰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

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자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죄가 드러나자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다시 어둠을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고집스럽게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죄를 지적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완악해졌던 것을 경험했습니다(마 13:15, 막 3:5, 10:5, 16:14). 아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 백년 동안 죄를 지적 받았지만, 절대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적적이고 고집스런 신앙의 모습도 아주 심문나게 경험했습니다(마 2:5, 11:7, 25).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죄와 자신을 연관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역전된 어둠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반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씻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을 속임니까, 빛 가운데입니까? 하나님과 사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역시 세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어둠을 아니면 빛에 머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에 있는 인간이 함께 이야기 나눌만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제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길이요(2:1절a),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2:1~2).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어린 양이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지요(요 1:4, 5:9, 3:19, 8:12, 12:4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얻는 회개와 용서와 빛에 거하는 것이요(요 3:21, 8:12, 요일 2:12, 례 13:12, 고후 4:6, 6:14, 살전 5:5, 약 1:7, 벰전 2:9).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고후 4:7, 벰후 1:14).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답변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종교인들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둠에서 벗어나 수 없으며, 어떠한 가치를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은 썩어질 세상과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한나



한나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정말로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의 마지막에 기술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타락하고 비참해져 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이 세대에 심판을 선언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등장시키므로 이스라엘 역사의 명맥을 잇게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무엘서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돌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한나의 도구, 사무엘의 출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내가 없습니다. 그 중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한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삼상 1:8). 한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임마가 되기를 원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나는 가슴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열에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나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 1:10-11).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경배하는 한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귀한 아들이지만, 이 여인은 서원대로 아들을 바쳤습니다(삼상 1:28). 당시의 종교적 퇴폐함과 제사장의 젊은 아들의 비행이 있음에도 이렇고 귀한 사무엘을 나이 많아 늙은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가되도 나의 주여 당신의 사사로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차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삼상 1:26-27). 한나의 고백은 사무엘의 삶을 진정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삼상 2:1-10에는 한나의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찬송의 초점은 온통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한나의 신앙을 감찰하는 사무엘서 22장에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주시며 아들 셋과 딸 둘을 허락하신다는 복을 주십니다(삼상 2:21).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항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성경은 한나에게 우리가 주의 완전한 부모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시 103:13-14, 사 49:15).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영적인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눅 9:23-24, 요 12:24). 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시고 더 풍부히 주시는 분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드로전서 5:8-10는 성도들에게 큰 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곳에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의 열거

글래디스 아이얼워드(Glady Alward)

일찍부터 여성들은 세계 복음화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다. 선교사의 아내로서 시작한 그 역할은 20세기 말 접어들면서 여성 해방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로서 선교로서 선행하기도 하였다. 남녀 불문하고는 사회적 모순이 선교 지역에서 도출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여성들은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글래디스 아이얼워드는 사람들이 보기에 선교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못재 악인은 모자란 사람이었다. 그 당시 서양에서 가장 낮은 시인 여성이었고 내지 선교지의 혼란에서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 타락한 선교사 후보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1902년 런던에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14세부터 가정부 일을 하였다. 그녀의 고단한 인생의 유일한 낙은 공상과 음주, 흡연, 단소, 도박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그녀는 가톨릭 교회에 나갔고, 결국 20대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회심하고 나서 글래디스의 생활은 변하였다. 영라이프(Young Life) 모임에 참석하였으니 거기서 해외 선교사의 꿈을 키웠다.

부족한 학습 능력으로 인해 글래디스의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탈락했지만 그녀는 선교사라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존을 되었다. 그 돈으로 그 때 당시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즉 철도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중국에 들어가는 기차표를 마련하였다. 마침내 그녀는 ‘지니 로스’이라는 중국 선교사를 알게 되었다. 중국으로 갔다. 깊은 고상 끝에 중매에 도착한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노예로써를 위한 여인의 소명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일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글 로버’는 도처에서 소명을 수없이 많은 중국인 헌신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내리는 속도도 익혔던 것이다. 그 후 영라이프의 자선 의욕으로 여성들의 발을 조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마음을 여행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개종시켜 선교사의 꿈을 보였다. 1930년대 후반 중국 내륙으로 점차 전쟁 물결이 몰려오자 그녀는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인 큰 용기와 육체적 인내로 이들 사람들을 위한 구호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40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이끌고 황하를 건너 태국 국경을 넘어 안전지대로 떠난 그녀는 일도 감당하였다. 그 모든 사역 뒤에는 글래디스 아이얼워드가 보잘 것 없는 여성에게 선교사라는 소명을 주셨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내가 주께를 위해 일한 것은 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거야.” — 한나 버넷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지라는 모르겠다. 그는 이마 남자, 훌륭한 남자였을 거야. 고독을 많이 하고,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가 죽었지만 이마-버넷의 소망을 가질것이야 —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려보셨다 — 글래디스 아이얼워드를 찾아온 거야. — 하나님은 가장 낡은 사람이 아닌 가장 겸손한 자를 통해 가장 귀한 소명을 주셨던 것이다.

(루터스키의 '선교사 열거'에서)

이반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우즈베키스탄B

연합 단기선교단(8월 13일~21일)

1. 팀원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뜻에 민감할 수 있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심방, 노방전도,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3.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카자흐스탄

9교구 단기선교단(8월 13일~23일)

1. 모든 대원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3. 사역기간동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몽골B

12교구 단기선교단(8월 14일~23일)

1. 하트호른, 후질트, 아로이할 지역 선교
1. 하나님은 선교하고도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2. 몽골의 어린 영혼들에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3. 단원들이 하나님에 강건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몽골A

소방부 단기선교단(8월 12일~22일)

1. 나가는 선교사들과 보내는 선교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2. 대속의 주님을 사랑하고 몽골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게 하소서
3.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인도

사망부 단기선교단(8월 12일~21일)

1. 팀원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복음이 인도에 널리 전파되게 하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3. 환경에 잘 적응하여 한 마음으로 온혜 가운데 사역을 마칠 수 있게 하소서

우즈베키스탄A

13교구 단기선교단(8월 13일~21일)

1. 우즈베키스탄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주소서
2.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3. 복음의 비말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몰디비아

5교구 단기선교단(8월 14일~24일)

키시나르 - 콤파트 - 브라슬라 지역 선교

1. 성령님께서 몰디바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성령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고도 준비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3.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루마니아B

4교구 단기선교단(8월 15일~24일)

몰니쿠사 - 덤브라비나 - 폭사니 지역 선교

1. 전 대원이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3. 모든 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게 하소서

• 루마니아로 단기선교를 떠날때 1교구 선교단과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떠날때 대우부 동종 1, 2부 선교단, 페르로 단기선교를 떠날때 대우부 동종 1부 선교단, 루마니아로 단기선교를 떠날때 대우부 선교단, 불가리아로 단기선교를 떠날때 5교구, 장년3부 선교단, 제로로 단기선교를 떠날때 유치부 선교단,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날때 경찰전도부 선교단이 지난 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 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를 합시다.

이수스 류뫼트 바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선물

백 봉 선 (집사, 5교구 몰다비아 단기선교 단원)

이 민 형 (대학부, 9교구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단원)

몰도바! 또는 몰다비아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를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게된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주 흡사하여 이들 영혼에 대한 우리 팀원들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식민생활을 했으며,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과 더불어 세계 5대 공산국가인 나라이다.

국토 면적은 하와이 섬의 약 2배이나 인구는 약 450만 명으로 CIS국가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그래서인지 천주교회 외선부의 CIS(구소련 독립국가연합)국가 중에서도 몰도바 출신의 형제 자매가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불행하게도 전체 인구의 약 50%가 러시아 정교인이고 참 신자는 3%에도 못 미친다고 하며 42%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무신론자라고 한다.

이런 몰도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팀원들은 의료, 어린이, 이미용 사역과 노방 전도, 심방사역 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동안 언어훈련과 어린이 프로그램, 전도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특히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였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김 혼 정 (외선부,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 단원)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다녔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이번 사역은 지난 번에 했던 것처럼 심방 위주의 사역이 아니라 낯선 무슬림에 대한 노방 전도와 어린이 사역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고 두려움도 있었다.

팡야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여호수아. 그는 경험도 지식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그랬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다. 매 기도회에 모일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보잘 것 없는 개인들은 깨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가 아닌 그 분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를 비롯한 팀원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살림!

저희들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땅을 밟게 됩니다. 구 소련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 더 많은 자유를 소망하며 나라이름도 카자흐스탄이라고 지어 독립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 자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종교경찰에 붙잡혀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판 날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기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할 카자흐스탄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유명한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니다가 마침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 수술을 하여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와 똑같은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병을 고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그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고침 받은 그 친구가 자신을 치료해 준 그 의사를 소개해 주지 않을까요? 분명 고통 당하고 있는 그의 친구에게 즉시 달려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그 의사를 당장에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차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으니, 아직까지 선물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단기선교를 갈 때에는 정말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먼저 선물을 내 놓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주면 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파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하신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 사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 진 사명임을 깨닫고 진정한 최고의 선물은 좋은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구원의 사역에 더욱 힘쓰는 9교구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영혼이 아닌 복음에 굶주린 예비된 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진작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중보기도 사역을 기다립니다.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부 서	사역지	날 짜	부 서	사역지	날 짜
대학부	과테말라	8월 1일(목)~8월 14일(수)	15교구	카자흐스탄	8월 6일(목)~8월 16일(금)
3교구	체코	8월 5일(월)~8월 14일(수)	할렐루야	엘 살바도르	8월 7일(수)~8월 17일(토)
대학부	루마니아	8월 5일(월)~8월 15일(목)	청년1부	몽골C	8월 8일(목)~8월 15일(목)
7교구	불가리아	8월 5일(월)~8월 16일(금)	1교구	몽골D	8월 8일(목)~8월 15일(목)
유니부	도미니카	8월 5일(월)~8월 15일(목)	고등부	방글라데시A	8월 8일(목)~8월 17일(토)
영아부	스리랑카	8월 6일(화)~8월 14일(수)	고등부	방글라데시B	8월 8일(목)~8월 17일(토)
14교구	몽골A	8월 6일(화)~8월 14일(수)	청년1부	우즈베키스탄	8월 9일(금)~8월 17일(토)
7교구	몽골B	8월 6일(화)~8월 16일(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진 자

유 지 성 (대학부)

NMC병원 전도를 갔었다. 가기 전부터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켜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함이라" (딤후 2장 3-4).

'내가 군사였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나의 내태움을 깨닫고 있는 하후하루였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만 군사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 가운데서만 군사인 것이 아니라 늘 나는 군사였던 것이다. 항상 깨어있지 못한 것 같아서 떨쳐야 하는 마음이 들었다. 성령충만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또 한 번 깨달았다. 찬양을 하기 위해 병원 8층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는 찬양임을 내가 기억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찬양하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열매들을 거두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찬양이 끝난 후, 6층 자매 병실에 전도하러 갔을 때였다. 한 할머니께 예수님을 전하자,

"다 좋은건데 뭐"라고만 말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와야 할 그 때에 이 할머니가 다시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너무 아왔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선 복음이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닐까 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것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지도 못한 채 죽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과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많은 영혼이 공중한다 생각이었다. 이런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순 없잖나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오늘 NMC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단 한 분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복음의 빛진 자였다.

믿어 순종하기

이 형 남 (대학부)



왜 주님은 이 별레갈고 하찮은 존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맘에 감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다"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 흥 없고 고갈처럼 세상의 어떤 미사여구에도 표현할 수 없는 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맘 속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그 분이 걸어가셨던 좁고 험한 길을 걷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한다. 그러나 개인인 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남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한 때는 이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주님께 한없이 반항하며 벗어나고 싶기도 했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하건 채 나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새삼 되돌아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나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의와 직장과 캠퍼스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란 확신도 내 안에 있다. 이제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데(순종하기란 내 평생의 과업이랄까) 그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종하려면 먼저 나의 욕심을 뺏아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맘대로 되지 않는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도하면서, 믿음의 여러 선진들이 믿음의 권위에 복종했듯이 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하나의 밀알이고 싶다.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염 현 민 (대학부 교사)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대결 장면이 나온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로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먼저 우상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빌지만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비는 오지 않았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 무너져 있는 단을 다시 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또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들을 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후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단에 있던 모든 것을 태웠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와 하나님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지금 세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또한 얼마나 감사할까? 나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됐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습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더 절제하고 말갯드리는 삶을 사는 것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늘...라...우...신...주...의...이...름

9. 우리의 보종(히 7:22)

'우리의 보종'은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며 성경 전체에 스며 있는 초칭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종이 되셨느니라" (히 7:22).

다른 사람을 위해 '보종'이 되는 사람은 대개 빛을 갚는 것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종과 중보자는 다르다. 중보자는 서로 불완전한 관계를 화해시키지만 그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보종인은 값이 지불될 것을 보종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우리의 보종 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빛을 졌다. 그 빛이 너무 커서 우리는 파산하였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파산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빛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그 빛을 때, 그는 값없이 우리의 빛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보종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종,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사실 것인가? 그는 영원히 사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보종하시기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보종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송사하며(삼 3:1-5) 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송사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께 "저 그리스도인이 한 일을 보셨습니까?"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그대 내가 보고 들었노라"라고 하신다. 사탄은 갹론한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그 죄로 정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나는 그의 보종이다. 그는 정죄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내가 보종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죽었을 때 나는 그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다. 나의 상치를 보아라"라고 하신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빛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보종인으로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살기를 즐긴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 3:6).

죄를 주님께 고백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보종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우리의 빛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다.

구역공과를 공부하여

수련회를 마치고

확실한 소망

내 마음은 성령님의 전

민 병 인 (권사, 장년 2부교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그곳의 포로로 붙잡혀있던 이스라엘에게 죄악된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고 '예루살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렘 51:45-50).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오직 예루살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살 길이고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또한 바벨론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도록 권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엡 1:23)로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물질, 노동 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엡 4:16).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 1:6,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쥅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2).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밖에 안 된다(벧 3:18). 믿는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다. 삶의 이유, 기준,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이 모든 삶을 기꺼이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때 순환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생이 전부인 양 착각하여,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비록 이생이 인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전 15:19).

지금 나의 삶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인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가?

(임혜원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홍 선 열' 성도를 소개합니다



스무살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여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언제나 마음 속으로는 '이러면 안되는데' 하며 차릴 피일 머루다가 이제야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노르스마자를 배우러 갔다가 충현 교회 집사님을 만나 전도 받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가끔 교회에 갈 때는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충현 교회는 예배드리면 내 첫 날부터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회개하는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큰 건물에 위압감을 느낀 나머지 소외될 것을 걱정했는데 곧 그 마음은 사라지고,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가족부 집회에서 교육받는 것도 즐겁고 기뻐서 꼭 전경에 온 느낌이 드는데, 특히 단계별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주는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남편이 야간 일 때문에 주일예배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양요실

1교구 윤영선 집사(여55년)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치료를 잘 감당할 것과 배우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4교구 황용조 집사(남67세) 간암 · 폐암으로 통풍이 심합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송기봉 성도(남36세) 교통사고로 중상(다리 골절 · 허리 부상 등)을 입었습니다. 다친 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세원 성도(남74세) 16일 척추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환우가 하나님께서 주

다음주일 찬송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존 케블(J. Kable, 1792-1868)목사가 1827년에 작사한 찬송이다. 시편 27편 1절의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는 말씀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 찬송은 작사가가 부가복을 24장 29절 "우리와 함께 유하시라. 때가 이미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녁'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중간부분에 해당된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밤도 밝아 될 수 없고, 가장 행복한 삶도 얻을 수 있고 또 인생의 저녁이 되었을 때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늘 주님의 품에 안겨 주의 사랑 가운데 하사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찬송이다.

- 1절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쳐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 2절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하게 하소서
- 3절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 4절 잠들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전체적으로 고요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둘째단은 네 번째 소절까지는 점점 커지게 부르다. 다섯째 소절은 전체 중에서 음이 가장 높은 것처럼 그렇게 크게 간절하게(그러나 과격하지 않게) 부르고 다음 세 소절은 점점 작아진다.

(한정호 원로)

시는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고, 수습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이동권 집사(남57세)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오른 쪽 발 말초신경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함께 기도해 주셨던 이해철 성도가 지난 1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역자 인사 이동

1. 교구위원회

교구위원회 지도 / 이종대

교구	목사	전도사	교구	목사	전도사
1교구	정현민		11교구	송길환	최문실
2교구	김용덕	장해구	12교구	위건량	김정진
3교구	여성기	윤인숙	13교구	김익환	김정연
4교구	이수근	신동자	14교구	고광환	한영준
5교구	서광진	김말자	15교구	여국근	최효심
6교구	나광영	이옥주	16교구	안창덕	강덕필
7교구	정진호	조목자	17교구	노경묵	김연식
8교구	방준영	안태순	18교구		
9교구	김영훈	정연희	19교구	류병희	장해구
10교구	이성욱	홍순애			조목자

2. 보직 임명

- 1) 여성기 / 새가족부 지도, 제3교육위원회 지도, 교육훈련연구원 지도
- 2) 안창덕 / 청년2부 지도, 총현장학회 지도
- 3) 나광영 / 장년3부 지도, 법조인전도회 지도
- 4) 김진수 / 고등부 지도
- 5) 김정연 / 유아부 지도
- 6) 김말자(등록실), 안태순 / 새가족부 부지도
- 7) 최효심 / 예배위(현금부) 부지도
- 8) 김경배 / 외선부(스리랑카) 부지도
- 9) 윤정훈 / 외선부(몽골) 부지도

이상 2002년 8월 7일부터

호스피스 자원봉사 실시

우리교회의 5대 목표 가운데 다섯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교회 총 예산의 10% 정도를 대내외의 구제에 협조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과 같이 먼저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매월 식생활이 어려운 교회 내의 식구들을 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인 (충원복지관)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돌고 있으며 앞으로는 양로원을 건립하여 말년에 어려운 노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 양로원 사역과 함께 필요한 것이 호스피스(Hospice) 사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은 단순히 말기의 환자들을 돌본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 죽음을 준비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교회는 호스피스 사역을 보다 규모있고 체계있게 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먼저 호스피스 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에 위탁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1. 호스피스의 의미

호스피스는 라틴어의 '주인'을 뜻하는 hospes와 '장소'의 뜻을 지닌 hospitium에서 유래된 말로 '주인과 손님이 서로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중세기 때는 성지 순례객들의 숙소의 의미가 있었고 19세기 때는 편안히 임종하도록 도와 주는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근대에는 말기 환자의 마지막 남은 생을 돌봐 주는 일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각국마다 암 환자를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과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2002 하반기 장학생 명단

전역 장학생(7명)

김법진	정안나	이희주	강진수	조은정	이복순	가윤영
-----	-----	-----	-----	-----	-----	-----

대학원생 (16명)

이종원	정미현	김성자	최현주	이평희	김민철	김지혜
이숙향	이수은	백경희	김수정	안영희	박윤식	김윤희
백은경	서백자민					

대학생 (69명)

이영우	김지희	이덕용	홍사라	이은혜	조성직	장성호
오남경	김요한	박경옥	이미현	오미정	조혜인	김정운
배지혜	송효기	한정우	조정혜	김수정	박하얀	유병규
조선희	권성재	추진희	박연미	추희은	장재욱	강보은
김진애	최정아	김소희	김혜진	장정은	장국용	김희정
박영진	변강석	최지숙	이유미	김혜선	이상희	노미소
문화원	이선화	허숙현	최윤경	강현지	임혜림	김진희
김창배	이정민	김 결	이재림	김창환	김선정	김연신
김보성	민수정	한다경	김누리	김수연	배성준	최지은
이호준	양성민	김한바다	허예스터	김현바로	김예리사	

고등학생 (69명)

김윤경	홍경화	김윤경	김선영	최윤영	이대오	이세익
문선명	조용미	김소라	김희진	유종훈	유미나	이훈희
김희철	이효근	김보성	이다정	유미경	박장아	박주영
김근대	최 용	이덕진	김명희	한영아	엄혜진	이재욱
박경훈	염혜실	장미라	윤태원	한태범	이지훈	박환용
이정덕	지효정	이영훈	조상미	오상덕	이주영	형윤옥
조준현	조 형	김영준	박지영	지형준	유승희	홍윤옥
이진구	이지영	김지원	박송미	권덕용	백지연	이호진
심명진	김은영	곽원두	박미영	전선영	서단비	이민정
김희숙	이대복	김지옥	송윤규	이동수	신성철	

중학생 (8명)

김예진	김지혜	강미경	정밖음	이재원	강 건	김홍미
이주광						

위탁 장학생 (1명)

이상훈

이상 170명

장학금수여식

2002년 8월 11일(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베타니홀

있어 전인적인 도움 즉, 육체적, 정서적 사회 경제적, 영적인 문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2. 호스피스 사역의 목적

호스피스 사역은 암과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를 제양 받은 자라고 판단하고 낙담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투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종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끝까지 투병과 임종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명 모집

- 1) 시간 / 매주 화요일 09:30-12:30(3시간)
- 2) 기간 / 2002년 9월 10일-11월 26일(12주)
- 3) 장소 /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3층
- 4) 접수처 / 교육국이나 봉사위원회의(전화 552-8200, 교한 471, 363번)
- 5) 접수마감 / 2002년 8월 18일(주말)까지
- 6) 지원 자격 / 본 교회 세례교인(심사후 개별 통지함)
- 7) 주관부서 / 봉사위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정원희 92구	김경자 92구	송항자 42구	신동우 33구	윤인숙 33구
김옥윤 142구	한영준 172구	김연식 102구	홍순애 62구	이옥주 62구
김말자 52구	안태순 82구	최효심 152구	김경연 72구	조옥자 72구
강덕필 162구	김정신 122구	장해구 22구	최문심 112구	

■ 교정전도사 박양덕

■ 단기선교사 강기업 (소의광개)

■ 단기귀환선교사 최은아 (소의광개)